

남녀 고등학생의 우울관련 요인

최미경

관동대학교 간호학과

Influential Factors on Depression among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Mi-Kyoung Choi

Department of Nursing, Kwando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influencing factors on depression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at the high school.

Methods: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on a convenience sample of 403 high school students. The data analysis procedure included frequency, χ^2 test,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depression as the dependent variable.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depressive symptoms: the mean depression score of female stu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male student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depression revealed that the most powerful predictors (34%) were powerlessness and self-esteem for male students. On the other hand, the factors such as self-esteem, mother's occupation, and family function were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s (50%) for female students.

Conclusion: The necessity of an intervention considering gender difference in high school students so as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depression was suggested.

Key words: Depression, Influential factors, High school students

접수일 : 2013년 10월 31일, 수정일 : 2013년 12월 23일, 채택일 : 2013년 12월 26일

교신저자 : 최미경 (210-701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내곡동))

Tel: 033-649-7615, Fax: 033-649-7620, E-mail: mkchoi@kd.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학교보건 영역에서 우울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우울증상이 등교거부, 학교폭력, 따돌림, 흡연, 음주, 자살, 약물남용 등과 같은 문제행동과 깊은 관련이 있기(Kobayashi 등, 2005) 때문이다. 최근의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조사(질병관리본부, 2012)에서도 우울감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음주나 흡연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다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우울의 문제점은 이 시기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을 경우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우울이 이행되고 재발하기 쉬워 성인이 되어서도 우울의 발생률을 높인다(Denda, 2007)는 점에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우울의 예방 및 조기 대책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우울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는 학교현장에서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우울과 관련한 요인으로는 많은 연구에서 성별과 경제수준, 학교성적, 교육수준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Bjelland 등, 2008; Brown 등, 2005; Frojd 등, 2008)을 비롯하여 음주와 흡연, 식습관과 같은 생활습관 요인(Field 등, 2001; Rabois와 Haaga, 1997), 스트레스(Kobayashi 등, 2005), 성격특성(Frost 등, 1990), 사건에 대한 부정적 해석, 통제위 등의 인지적 요인(최미경, 2011; Takakura와 Sakihara, 2001; Teasdale, 1988), 부모의 양육방법과 같은 가정환경적 요인(김보경과 민병배, 2006; 노지형과 송현주, 2012) 등이 보고되고 있다. 한편, 정서적 지지나 자존감, 가족기능 등과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송영희와 이윤주, 2010; 최해경과 김선숙, 2009; Hops 등, 1990; Lewinsohn 등, 1997; Meadows, 2007;

Uchida와 Hujimori, 2007) 또한 우울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중요한 요소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 사회심리적 요인과 우울과의 관련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청소년의 경우가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Allgood-Merten 등, 1990) 있다. 즉 높은 정서적 지지와 자존감, 가족기능 정도는 우울을 경감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정서적 지지는 심리적 갈등 시 카타르시스, 자기통찰, 안심감과 신뢰감, 자신감의 향상(Munakata, 1996) 등을 통한 완충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가족기능은 가족구성원간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심리적 안정감(최미경, 2005)이라는 측면에서 우울증상의 발현에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존감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있어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보고되고(Hops 등, 1990) 있는데, 이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적응사이의 매개역할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와 대처에 관여함으로써 우울증상의 발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소년의 자존감과 관련하여 Ohnishi(2005)는 특히 개인의 인권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자존감은 그들의 정신건강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일상생활 속에서 만성적인 스트레스 및 그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로 인해 생기게 되는 무력감 또한 우울과의 깊은 관련성이 보고되고(Landis 등, 2007)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Seligman(1975)은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학습이 되어 작은 난관에서조차 무력감에 휩싸여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효과적인 대처 또한 어려워져 스트레스 만성화 상태가 초래되고 또다시 무력감에 빠지며 결국 우울을 불러오는 악순환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Kobayashi 등, 2005). 그런데, 청소년의 경우 이전과 다른 사회환경 속에서 무력감 경험으로 인한 우울증상을 보다 많이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즉

급변하는 사회상황 속에서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최근의 가정의 위기상황의 증가(유장춘, 2009)와 같은 환경의 변화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경우,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할 불안정한 시기에 지나친 통제와 수동적 입시위주의 교육현실로 심리적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적절한 돌과구를 찾지 못할 경우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고 보다 쉽게 우울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3)를 보면 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이 32.6%로 중학생의 29.0%보다 높았는데, 스트레스 인지율에서도 고등학생(37.1%)이 중학생(28.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김기정의 연구(2009)에서는 조사대상자인 고등학생의 60%가 우울상태에 놓여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우울 연구에서 무력감을 포함한 조사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행해진 연구에서는 노인이나 중년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고등학생과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우울증상은 그 발현에 있어 여성의 발생률이 높게 보고되고(Sarah 등, 2010) 있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몇몇 연구조사(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3; 김명식, 2008)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증상을 보다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차이는 우울증상의 발현과 관련한 요인에 있어서도 남녀 각각에 대한 차이를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특히 학교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우울 예방 교육을 하는데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하는데, 현재까지의 연구를 보면 남녀 학생 각각에 대해 우울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비교 조사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우울과 관련한 요인을 무력감과 자존감, 가

족기능, 정서적 지지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우울과 관련한 요인에 대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우울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녀 고등학생들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일반적 특성에 대한 남녀 차이를 확인한다.
- 둘째, 대상자의 우울, 무력감, 자존감, 가족기능, 정서적 지지 정도를 파악하고 남녀 차이를 확인한다.
- 셋째, 남녀 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확인한다.
- 넷째, 남녀 고등학생 각각에 대해 우울과 무력감, 자존감, 가족기능 및 정서적 지지의 상관을 확인한다.
- 다섯째, 남녀 고등학생 각각에 대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무력감과 자존감, 가족기능, 정서적 지지 요인을 중심으로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자는 강원도 소재 일 도시지역 3개 고

등학교 2학년 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3년 5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설문지 조사를 행하였다. 조사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보건교사와 담임교사가 방과 후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여 동의를 구한 후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조사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므로 설문지에는 이름을 명기하지 않고 통계처리되어 개인 정보가 누출될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자수는 420명 중 설문지 항목의 누락이 많아 분석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17명을 제외한 403명이다. 적정 대상자수의 결정은 G*Power 3.0 프로그램으로 검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182명)과 여학생(221명) 각각에 대해 분석을 행하였기 때문에 남녀 학생 각각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필요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95을 투입하였을 때 최소 대상자수는 남학생 138명, 여학생 153명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적절하였다.

3. 연구도구

설문지의 내용은 성별과 형제유무, 부모와의 동거여부,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 직업, 경제수준, 학교 성적, 친구수 등과 같은 일반적 특성을 비롯하여 우울과 무력감, 자존감, 가족기능, 정서적 지지 등의 척도로 구성되었다.

1) 우울

본 연구에서는 Zung(1965)의 우울증 자가측정 척도(SDS)를 이중훈(1995)이 번안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기분이 우울하거나 슬프다' '울고 싶거나 눈물이 난다' 등의 20개 문항에 대해 최근의 기분에 대해 조사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아니오' ~ '언제나 그렇다'에 1-4점을 부과하였는데, 20문항 중 10개의 역문항에 대해서는 역으로 점수를 부과

하였다. 점수의 분포는 20점-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0.682$ 이었다.

2) 무력감

Munakata(1996)의 무력감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사용에 있어 외국어에 능통한 간호학 교수 1인과 보건학 교수 1인이 원본을 번역한 후 번역본을 다시 원어로 번역하여 원본과 번역본을 비교한 후 차이가 있는 항목을 재번역하고 수정하였다. 이 도구는 7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는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도 어쩔수 없는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는가' 등의 6개 문항에 대해서는 '거의 없었다' '때때로 있었다' '자주 있었다'까지의 3단계 척도로 1-3점을, '지금까지 직면한 문제 중 나름대로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되는 적이 있는가'의 1개 문항에 대해서는 역으로 점수를 주어 가산한 평균치를 구하였다. 점수의 분포는 7-2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무력감 정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0.785$ 였다.

3) 자존감

본 연구에서의 자존감은 Cheek와 Buss(1981)의 자존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이 척도는 Rosenberg의 척도와 .88의 상관을 가지며 거의 비슷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도구의 사용에 있어 외국어에 능통한 간호학 교수 1인과 보건학 교수 1인이 원본을 번역한 후 번역본을 다시 원어로 번역하여 원본과 번역본을 비교한 후 차이가 있는 항목을 재번역하고 수정하였다. '대체로 나는 자신이 있다' '나는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등의 자존감을 나타내는 2 문항과 '나는 잘못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등의 자존감 결여를 나타내는 4문항의 6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긍정적인 2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 ~ ‘정말 그렇다’에 1-4점을 부과하였고, 자존감 결여를 나타내는 4문항에 대해서는 역으로 점수를 부과하였다. 점수의 분포는 6-24점으로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0.772$ 였다.

4) 가족기능

본 연구에서의 가족기능은 Smilkstein(1978)의 Family APGAR Score에 대해, Kang과 Shim(1985)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토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이 설문지는 ‘나는 힘들 때 가족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다’ ‘슬프거나 좋아한다는 등의 느낌을 얘기했을 때의 가족들의 반응에 만족한다’ 등, 적응성(adaptability)과 협력성(partnership), 성장성(growth), 애정성(affection), 해결성(resolve)을 나타내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거의 아니다’ ~ ‘항상 그렇다’에 1-3점을 부과하였다. 점수의 분포는 5-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좋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0.763$ 이었다.

5) 정서적 지지

본 연구에서의 정서적 지지란 Munakata(1996)의 정서적 지지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도구의 사용에 있어 외국어에 능통한 간호학 교수 1인과 보건학 교수 1인이 원본을 번역한 후 번역본을 다시 원어로 번역하여 원본과 번역본을 비교한 후 차이가 있는 항목을 재번역하고 수정하였다. ‘나에게는 만나면 마음이 안정되고 안심되는 사람이 있다’ ‘개인적인 기분이나 비밀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나의 일이나 학업에 대해서 평소에 평가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아니다’에 1점, ‘그렇다’에 2점을 주어 가산한 평균치를 구

하였다. 점수의 분포는 6-1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지지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0.803$ 이었다.

4. 자료분석

SAS통계프로그램(Ver 9.1)을 사용하였고, 모든 측정도구에 대해서는 각 문항에 대한 점수를 가산한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χ^2 test, 우울과 무력감, 자존감, 가족기능, 정서적 지지 정도의 남녀 차이는 t-test로 검토하였다. 남녀 학생 각각에 대해 일반적 특성별 우울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검토하였고, 사후검정은 Duncan분석을 행하였다. 또한 남녀 학생 각각에 대해 우울과 각 척도와의 상관관은 Pearson 상관계수로 검토하였고 우울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남녀 학생수는 각각 182명(45.2%), 221명(54.8%)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형제가 있는 사람은 82.5%,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대상자는 87.1%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으로는 아버지의 68.3%, 어머니의 54.8%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갖고 있었고,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42.7%였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수준에 있어 대상자의 73.3%가 ‘중’, 22.4%가 ‘상’이라고 답하였다. 학교성적에 대해서는 ‘상’ ‘중’ ‘하’가 각각 26.4%, 47.6%, 25.9%로 나타났다. 친구수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51.5%가 ‘1-3명’, 43.7%가 ‘4명 이상’의 친구가 있다고 답하였고 ‘한명도 없다’고 답한 사람은 4.8%였다.

일반적 특성의 남녀 학생의 비교를 보면 형제유무와 어머니의 교육수준, 학교 성적, 친구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형제유무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형제가 '있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여학생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학

교 성적과 관련해서는 여학생의 경우 자신의 성적이 '상', '중'이라고 답한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보다 많게 나타났다. 친구수는 남학생의 경우 '4명 이상'의 친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여학생은 '1-3명'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 | (N=403) | | | | |
|---------------|---------|------------------|------------------|------------------|----------|-------|
| 특 성 | 구 분 | 전체 | 남학생 | 여학생 | χ^2 | p |
| | | (N=403) 실수(%) | (N=182) 실수(%) | (N=221) 실수(%) | | |
| 형제* | 유 | 331(82.5) | 140(76.9) | 191(87.2) | 7.31 | .007 |
| | 무 | 70(17.5) | 42(23.1) | 28(12.8) | | |
| 부모와의 동거 여부 | 그렇다 | 351(87.1) | 155(85.2) | 196(88.7) | 1.10 | .294 |
| | 아니다 | 52(12.9) | 27(14.8) | 25(11.3) | | |
| 교육수준(부)* | 고등학교 이하 | 125(31.7) | 64(36.2) | 61(28.1) | 2.91 | .088 |
| | 전문대학 이상 | 269(68.3) | 113(63.8) | 156(71.9) | | |
| 교육수준(모)* | 고등학교 이하 | 181(45.3) | 97(53.9) | 84(38.2) | 9.86 | .002 |
| | 전문대학 이상 | 219(54.8) | 83(46.1) | 136(61.8) | | |
| 어머니의 직업 | 주부 | 231(57.3) | 102(56.0) | 129(58.4) | 0.22 | .638 |
| | 직업 있음 | 172(42.7) | 80(44.0) | 92(41.6) | | |
| 경제수준* | 상 | 90(22.4) | 35(19.4) | 55(24.9) | 1.69 | .430 |
| | 중 | 294(73.3) | 137(76.1) | 157(71.0) | | |
| | 하 | 17(4.2) | 8(4.4) | 9(4.1) | | |
| 학교성적* | 상 | 106(26.4) | 41(22.8) | 65(29.4) | 23.91 | <.001 |
| | 중 | 191(47.6) | 71(39.4) | 120(54.3) | | |
| | 하 | 104(25.9) | 68(37.8) | 36(16.3) | | |
| 친구수* | 없다 | 19(4.8) | 12(6.7) | 7(3.2) | 27.07 | <.001 |
| | 1-3명 | 205(51.5) | 66(37.1) | 139(63.2) | | |
| | 4명 이상 | 174(43.7) | 100(56.2) | 74(33.6) | | |

* ; Missing data excluded
 χ^2 -test; 남학생 vs 여학생

2. 대상자의 우울과 무력감, 자존감, 가족기능, 정서적 지지 정도와 남녀 차이

전체 대상자의 우울의 평균치는 42.95, 무력감 10.69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자존감은 18.4, 가족

기능은 11.14, 정서적 지지는 10.74로 중간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교에서는 우울($t=-2.99, p=.003$)과 정서적 지지($t=-4.81, p<.001$)에 있어 여학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표 2>.

<표 2> 대상자의 우울과 무력감, 자존감, 가족기능, 정서적 지지의 남녀 차이

| 성별 | 전체 | 남학생 | 여학생 | t | p |
|--------|--------------|--------------|--------------|-------|-------|
| 우울 | 42.95(±7.45) | 41.74(±7.02) | 43.94(±7.65) | -2.99 | .003 |
| 무력감 | 10.69(±2.55) | 10.48(±2.64) | 10.87(±2.47) | -1.52 | .130 |
| 자존감 | 18.43(±3.49) | 18.34(±3.41) | 18.50(±3.57) | -0.45 | .650 |
| 가족기능 | 11.14(±2.60) | 11.24(±2.65) | 11.06(±2.57) | 0.67 | .505 |
| 정서적 지지 | 10.74(±1.72) | 10.30(±1.82) | 11.11(±1.55) | -4.81 | <.001 |

t-test ; 남학생 vs 여학생

3. 남학생과 여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점수

남학생의 경우 우울은 어머니 직업($t=2.28, p=.024$), 학교성적($F=4.16, p=.017$)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즉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 학교 성적이 '하'인 경우가 '중'인 경우보다 우울 정도가 높게 나

타났다. 여학생은 어머니 직업($t=-5.15, p<.001$)과 경제수준($F=4.88, p=.009$), 학교성적($F=8.47,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즉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경제 수준이 '하'인 경우가 '상'인 경우에 비해, 그리고 학교 성적이 낮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았다<표 3>.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점수의 차이

| 특 성 | 구 분 | 남학생 | | | 여학생 | | | | |
|------------|---------|--------------|------|------|-----|--------------|-------|------|---|
| | | 평균(±SD) | t/F | p | D | 평균(±SD) | t/F | p | D |
| 경제 유무 | 유 | 41.44(±7.29) | 1.03 | .305 | D | 44.29(±7.83) | -1.55 | .122 | D |
| | 무 | 42.71(±6.00) | | | | 41.89(±6.17) | | | |
| 부모와의 동거 여부 | 그렇다 | 41.83(±7.08) | 0.41 | .681 | | 44.18(±7.56) | 1.29 | .197 | |
| 교육수준(부) | 고등학교 이하 | 42.03(±6.31) | 0.56 | .574 | D | 45.30(±7.91) | 1.45 | .147 | D |
| | 전문대학 이상 | 41.43(±7.19) | | | | 43.60(±7.50) | | | |

(N=403)

| 특 성 | 구 분 | 남학생 | | | | 여학생 | | | |
|---------|---------|--------------|------|------|----|--------------|-------|-------|----|
| | | 평균(±SD) | t/F | p | D | 평균(±SD) | t/F | p | D |
| 교육수준(모) | 고등학교 이하 | 42.29(±5.84) | 1.29 | .200 | | 44.44(±7.90) | 0.70 | .482 | |
| | 전문대학 이상 | 40.94(±8.18) | | | | 44.97(±7.51) | | | |
| 어머니 직업 | 주부 | 42.78(±6.87) | 2.28 | .024 | | 41.82(±6.84) | -5.15 | <.001 | |
| | 직업 있음 | 40.41(±7.03) | | | | 46.91(±7.78) | | | |
| 경제수준 | 상 | 42.51(±8.09) | 0.67 | .513 | | 41.44(±7.55) | 4.88 | .009 | a |
| | 중 | 41.34(±6.81) | | | | 44.59(±7.40) | | | ab |
| | 하 | 43.50(±5.86) | | | | 47.89(±9.35) | | | b |
| 학교성적 | 상 | 41.93(±8.96) | 4.16 | .017 | ab | 41.32(±6.45) | 8.47 | <.001 | a |
| | 중 | 39.94(±6.25) | | | | 44.28(±7.20) | | | b |
| | 하 | 43.31(±6.12) | | | | 47.56(±9.43) | | | c |
| 친구수 | 없다 | 45.17(±4.24) | 2.87 | .059 | | 41.14(±6.89) | 0.81 | .446 | |
| | 1-3명 | 42.50(±7.40) | | | | 44.37(±7.55) | | | |
| | 4명 이상 | 40.73(±6.96) | | | | 43.50(±7.91) | | | |

t/F; t-test or ANOVA, D; Duncan test

4. 대상자의 우울과 무력감, 자존감, 가족기능, 정서적 지지의 관계의 차이

남학생의 경우 우울은 무력감($r=.49, p<.001$)과 정적 상관을, 자존감($r=-.44, p<.001$), 정서적 지지($r=-.17, p<.05$)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즉 무력감 정도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고

정서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우울은 무력감($r=.26, p<.001$)과 정적 상관을, 자존감($r=-.64, p<.001$), 가족기능($r=-.45, p<.001$), 정서적 지지($r=-.21, p<.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무력감 정도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고 가족기능이 좋지 않으며 정서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았다<표 4>.

<표 4> 대상자의 우울과 무력감, 자존감, 가족기능, 정서적 지지의 상관

| 성별/ 변수 | 남학생 | | | | | 여학생 | | | | |
|--------|-----------------|-----------------|------|---|---|-----------------|-----------------|------|---|---|
|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 1. 우울 | 1.00 | | | | | 1.00 | | | | |
| 2. 무력감 | .49 (<.001) | 1.00 | | | | .26 (<.001) | 1.00 | | | |
| 3. 자존감 | -.44 (<.001) | -.29 (<.001) | 1.00 | | | -.64 (<.001) | -.37 (<.001) | 1.00 | | |

| 성별/ 변수 | 남학생 | | | | | 여학생 | | | | |
|-----------|----------------|---------------------|--------------------|---------------|------|---------------------|---------------------|--------------------|--------------------|------|
|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 4. 가족기능 | -.09 (.205) | -.02 (.827) | .36 ($<.001$) | 1.00 | | -.45 ($<.001$) | -.22 (.001) | .42 ($<.001$) | 1.00 | |
| 5. 정서적 지지 | -.17 (.020) | -.32 ($<.001$) | -.01 (.947) | .04 (.594) | 1.00 | -.21 (.002) | -.26 ($<.001$) | .32 ($<.001$) | .28 ($<.001$) | 1.00 |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5. 우울에 대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대상자의 우울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관하기 위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에 대해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고 단변량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행하였다. 독립변수로 사용된 명목변수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남학생은 어머니 직업과 학교성적, 무력감, 자존감, 정서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하였고, 여학생은 어머니 직업과 경제수준, 학교성적과 무력감, 자존감, 가족기능, 정서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하였다. 분석에 앞서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에 대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산점도, 잔차 산점도로 정규성 및 독립성을 모두 확인하였다. 또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우울의 공차한계 범위는 0.73~0.85, 분산팽창계수가 1.06~1.37이었고, 여학생은 우울의 공차한계 범위 0.77~0.94, 분산팽창인자 1.07~1.50로 나타나 남녀 학생 모두에 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남학생은 무력감($\beta=.40, p<.001$)과 자존감($\beta=-.33, p<.001$)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각되었고 두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34%로 나타났다(무력감 24%, 자존감 10%). 여학생의 경우는 자존감($\beta=-.55, p<.001$)과 어머니 직업($\beta=.20, p<.001$), 가족기능($\beta=-.17, p<.01$)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각되었으며 이들 변수들에 의한 설명력은 50%였고 세변수 각각의 설명력은 42%, 6%, 2%였다<표 5>.

<표 5> 대상자의 우울에 대한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

| 성별 | 변수 | B | SE | β | t | p | Adj. R ² | F | p |
|-----|--------|-------|-----|---------|--------|-------|---------------------|--------|-------|
| 남학생 | 무력감 | 1.06 | .17 | .40 | 6.26 | <.001 | .24 | 54.70 | <.001 |
| | 자존감 | -.67 | .13 | -.33 | -5.13 | <.001 | .34 | 25.96 | <.001 |
| 여학생 | 자존감 | -1.18 | .12 | -.55 | -10.16 | <.001 | .42 | 153.03 | <.001 |
| | 어머니 직업 | 3.10 | .80 | .20 | 3.86 | .000 | .48 | 24.31 | <.001 |
| | 가족기능 | -.51 | .17 | -.17 | -3.04 | .003 | .50 | 9.22 | .003 |

IV. 논의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의 평균점수는 42.95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평균치인 박영선(2001)의 45.79, 이성민과 지창수(1985)의 43.74, 정도교(2008)의 49.04점 보다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대상자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보다 많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또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반복 조사를 바탕으로 한 비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울과 무력감, 자존감, 가족기능, 정서적 지지 척도의 평균점수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교에서는 우울과 정서적 지지 점수에 있어 여학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우울 점수가 여학생에서 높게 나타난 결과는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우울 성향을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곽은주 등, 2003; 조성희와 박소영, 2010)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Simon과 Nath(2004)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스트레스원에 대한 반응을 보다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어 우울이 쉽게 야기될 수 있다고 하였고, Nolen-Hoeksema와 Girgus(1994)는 여성은 자신의 불편한 증상을 밖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Allgood-Merten 등(1990)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다 많은 사회심리학적 변수에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즉 이는 현대사회와 같이 다양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는 여성이 우울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청소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Graber 등(1997)이 우울증상 발현의 남녀 차이를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남녀 학생 각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에서는 남학생은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 학교 성적이 '하'인 경우가 '중'인 경우보다 우울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어머니가 직업

을 갖고 있는 경우, 경제 수준이 낮으며 학교 성적이 낮은 경우 우울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어머니의 직업 유무가 남녀 학생 모두에 있어 우울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결과는 가족내 어머니와의 관계가 본 연구대상자들의 우울증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남학생은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 여학생은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보다 우울 점수가 높게 나타난 상반된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연구대상자의 남녀 학생 각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어머니와의 관계상의 문제와 우울과의 관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학교 성적 또한 남녀 학생 모두에서 낮은 경우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나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Frojd 등, 2008; Stewart 등, 1999)와 일치하였다. 이는 고등학생에 있어 학업문제가 그들의 주된 스트레스원 중 하나이며(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학교적응에 있어 중요한 변수(구본용, 2007)인 만큼 낮은 성적이 학교 부적응을 초래하고 우울을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한편 여학생에 있어 우울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경제수준 또한 경제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우울 경향이 높아진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Brown 등, 2005)와 일치하였다. 이는 경제적으로 여건이 취약한 경우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 보다 곤란을 겪을 확률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와 같이 여학생의 경우에만 경제수준이 우울과 유의한 관련을 보인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경제적 문제에 심리적으로 보다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도 생각되었다.

우울과 제 척도와의 상관에 있어 남학생은 무력감 정도가 강하고 자존감이 낮으며 정서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았고, 여학생은 무력감 정도가 강하고 자존감이 낮으며 가족기능이 좋지 않고 정서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았다. 무력감과 자존감, 정서적 지지는 남녀 학생 모두에 있어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무력감과

우울의 상관에 있어 대상자의 무력감 정도가 강할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배강대와 이현림, 2006; 최영순과 김현리, 2004)와 일치하는 결과인데, 이는 Kopp와 Rethelyi (2004)가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대상자인 고등학생과 같이 만성적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경우 때로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무력감에 빠지며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쉽게 일으킬 수 있다고 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무력감 및 우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Munakata(1996)는 개인의 무리한 요구수준을 낮출 것과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존감은 상관관계에서 뿐 아니라 다중회귀분석에서도 남녀 모두에서 우울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부각되었고 특히 여학생에 있어서는 단일 변수로써 우울에 대해 42%의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자신에 대한 평가요소인 자존감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연구에서 일관되게 중요한 요소로 보고되고(송영희와 이운주, 2010; 최미경, 2005; Hops 등, 1990; Howard와 William, 2005; Lewinsohn 등, 1997) 있다. 낮은 자존감과 같은 부정적인 자기도식(self-schema)은 쉽게 우울을 일으키는 변수로 작용하므로(Hammond와 Romney, 1995) 자존감은 우울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Allgood-Merten 등(1990)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증상을 예측하는데 있어 자존감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한 바 있다. Suzuki와 Ogawa(2008)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존감과 적응과의 관련을 우울, 불안과 같은 스트레스 반응으로 검토한 결과 자존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피력한 바 있다. 그리고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Ohnishi(2005)는 최근의 청소년 우울문제에 있어 자존감의 중요성을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개인 인권의식의 고취와 관련지어 언급한 바 있다.

정서적 지지와 우울과의 상관 또한 정서적 지지

가 낮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나 기존의 다른 선행연구 결과(홍영수, 2010; Allgower 등, 2001; Hoefnagels 등, 2007)와 일치하였다. 정서적 지지는 자신이 소속감을 느끼며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끼며 스스로 가치있고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함으로써 우울 증상의 발현에 강력한 완충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한편 가족기능은 여학생의 경우에서만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가족기능이 좋지 않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최해경과 김선숙, 2009; Uchida와 Hujimori, 2005)와 일치하였다. 가족기능은 또한 다중회귀분석에서도 여학생에서만 우울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부각되었는데, 이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은 가족간의 정서적 연대감에 있어 보다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여학생의 가족기능은 남학생과 달리 정서적 지지와도 유의한 상관($r=.28, p<.001$)을 나타내어, 여학생은 친구나 가족구성원과의 관계형성 속에서 얻어지는 안심감과 신뢰감이 부족할 경우 보다 쉽게 우울증상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생각되었다.

한편 우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우울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남학생의 경우는 무력감($\beta=.40, p<.001$)과 자존감($\beta=-.33, p<.001$)이, 여학생은 자존감($\beta=-.55, p<.001$)과 어머니 직업($\beta=.20, p<.001$), 가족 기능($\beta=-.17, p<.01$)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각되었고 이들 변수들에 의한 설명력은 각각 남학생 34%, 여학생 5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은 무력감이나 자존감 등의 보다 개인 내적 요인이, 여학생의 경우는 자존감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 이외에 어머니의 직업이나 가족기능과 같은 가정환경적 요인도 같이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우울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주변환경을 둘러싼 사회심리적 변수에 보다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Allgood-Merten 등, 1990)

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본 연구대상자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울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재하는데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와 그 특징을 파악하여 각기 다른 차별화된 접근방법을 취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대상자인 고등학생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교사를 중심으로 하여 학교 전체의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학생 개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와 관련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협조 체계 구축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남학생에 대해서는 특히 무력감 경험을 최소화하거나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에 무력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개인내적 요소인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3. 여학생의 경우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가정환경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를 포함한 가정내 유대감 증진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특성과 가정내 상황을 고려한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남학생과 여학생의 우울과 무력감, 자존감, 가족 기능, 정서적 지지 척도의 평균점수의 비교에서는 여학생이 우울과 정서적 지지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남녀 학생 각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에서는 남학생은 어머니 직업, 학교성적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여학생은 어머니 직업과 경제수준, 학교성적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우울과 제 척도와의 상관에 있어 남학생은 무력감, 자존감, 정서적 지지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무력감, 자존감, 가족 기능, 정서적 지지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우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남학생의 경우는 무력감($\beta=.40, p<.001$)과 자존감($\beta=-.33, p<.001$)이, 여학생은 자존감($\beta=-.55, p<.001$)과 어머니 직업($\beta=.20, p<.001$), 가족 기능($\beta=-.17, p<.01$)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각되었으며 이들 변수들에 의한 설명력은 각각 34%, 50%였다.

연구 결과, 조사 대상자인 고등학생의 우울과 관련한 정신건강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재함에 있어서는 남녀 학생의 차이와 그 특징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박은주, 송인순, 정용준, 조영채. 도시지역 일부 고등학생들의 우울과 불안에 관한 조사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3;20(2):63-79.
2.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제9차(2013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통계. 2013.
3. 구분용.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완벽주의와 학교 적응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2007;8(2):707-718.
4. 김기정. 고등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험요인·취약요인·보호요인을 중심으로[박사 학위논문]. 충북: 청주대학교 대학원, 2009.
5. 김명식. 일 도시의 남녀 중학생 우울증 유병율과 우울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 연구 2008;9(2):645-658.

6. 김보경, 민병배. 청소년 우울과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 기질 및 성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06;25(1):221-236.
7. 노지형, 송현주. 부모의 양육태도 불일치가 아동의 우울과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치료학회지* 2012;4(1):1-15.
8. 박영선. 흡연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불안 및 우울 : 대전지역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석사학위논문]. 충남: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9. 배강대, 이현림. 회상을 활용한 지지적 집단상담이 노인의 무력감,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2006;7(2):347-364.
10.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수준 및 보건외식행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2006.
11. 송영희, 이운주. 대학생의 비합리적 신념과 우울: 목표안정성과 자존감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2010;22(3):553-573.
12. 유장춘. 현대 정신과 가정의 위기 그리고 가정에 대한 교회사회사업가의 성서적 가치관 고찰. *교회사회사업* 2009;10:57-83.
13. 이성민, 지창수. 군 소속 고등학생과 일반남자 고등학생의 우울성향 비교. *신경정신의학* 1985;24(3):407-412.
14. 이중훈. 한국형 자가평가 우울척도의 개발. *영남의대학술지* 1995;12(2):292-305.
15. 정도교. 일기쓰기를 이용한 긍정적 자기암시가 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우울증 감소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16.
16. 조성희, 박소영. 가출 경험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010;17(11):289-315.
17. 질병관리본부.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서울: 질병관리본부, 2012.
18. 최미경. 서울시 일부 고등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5;22(4):155-166.
19. 최미경. 중학생의 우울과 자존감, A형 행동특성, 통제위의 관계.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11;28(4):51-61.
20. 최영순, 김현리. 집단미술요법이 노인의 무력감, 고독감, 우울, 자아상에 미치는 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04;15(2):255-265.
21. 최혜경, 김선숙. 가출청소년의 가족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009;20(2):69-108.
22. 홍영수. 부모학대가 아동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정서적 지지 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10;30:225-244.
23. Allgood-Merten B, Lewinsohn PM, Hops H. Sex differences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990;99:55-63.
24. Allgower A, Wardle J, Steptoe A. Depressive symptoms, social support, and personal health behaviors in young men and women. *Health Psychology* 2001;20:223-227.
25. Bjelland I 외 5명. Does a higher educational level protect against anxiety and depression? *Social Science & Medicine* 2008;66(6):1334-1345.
26. Brown S, Taylor K, Price SW. Debt and distress: evaluating the psychological cost of credi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005;26:642-663.
27. Cheek JM, Buss AH.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1;41:330-339.
28. Denda K. Depression in childhood. *Current Information of Maternal & Child Health* 2007;55:69-72.
29. Field T, Diego M, Sanders C. Adolescent depression and risk factors. *Adolescence* 2001;36:491-498.
30. Frojd SA 외 5명. Depression and school

- performance in middle adolescent boys and girls. *Journal of Adolescence* 2008;31(4):485-498.
31. Frost RO, Marten P, Lahart C, Rosenblate R.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90;14:449-468.
 32. Graber JA, Lewinsohn PM, Seeley JR, Brooks-Gunn J. Is psychopathology associated with the timing of pubertal developmen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997;36(12):1768-1776.
 33. Hammond WA, Romney DM. Cognitive factors contributing to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95;24:667-683.
 34. Hoefnagels C, Meesters C, Simenon J. Social support as predictor of psychopathology in the adolescent offspring of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007;16(1):87-97.
 35. Hops H, Lewinsohn PM, Andrews JA, Roberts RE. Psychosocial correlates of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90;19:211-220.
 36. Howard T, William PD. Obesity and student performance at school. *The Journal of School Health* 2005;75(8):291-295.
 37. Kang SK, Shim UT. A study of family APGAR scores for evaluating family function. *Chungnam Medical Journal* 1985;12(2):53-51.
 38. Kobayashi K, Kobayashi R, Kubo S, Sonoda T, Mori M. Depressive symptomatology and some relevant factors. *Japanese Journal of Public Health* 2005;52(1):55-65.
 39. Kopp MS, Rethelyi J. Where psychology meets physiology: chronic stress and premature mortality—the Central-Eastern European health paradox. *Brain Research Bulletin* 2004;62(5):351-367.
 40. Landis D 외 5명. Urban adolescent stress and hopelessness. *Journal of Adolescence* 2007;30:1051-1070.
 41. Lewinsohn PM, Gotlib IH, Seeley JR. Depression-related psychosocial variables: Are they specific to depress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997;106:365-375.
 42. Meadows SO. Evidence of parallel pathways: Gender similarity in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on adolescent depression and delinquency. *Social Forces* 2007;85(3):1143-1167.
 43. Munakata T. Health and illness in behavioral science. Tokyo: Medikaru Hurendo Sha, 1996.
 44. Nolen-Hoeksema S, Girgus J. The emerg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during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994;115:424-443.
 45. Ohnishi A. Self-esteem of adolescents in school. Kochi: Kochi Prefecture Education Center, 2005.
 46. Rabois D, Haaga DAF. Cognitive coping, history of depression, and cigarette smoking. *Addictive behaviors* 1997;22:789-796.
 47. Sarah VV, Piet B, Katia L.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in 23 European countries: Cross-national variation in the gender gap in depression. *Social Science & Medicine* 2010; 71(2):305-313.
 48. Seligman MEP. Helplessness: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San Francisco: Freeman, 1975.
 49. Smilkstein G. Family APGAR score, a proposal for a family function test and its use by physician. *The Journal of Family Practice* 1978;6:1231-1239.

50. Simon RW, Nath LE. Gender and emotion in the United States: Do men and women differ in self-reports of feelings and expressive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2004;109:1137-1176.
51. Stewart SM 외 5명. The correlates of depressed mood in adolescents in Hong Kong.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999;25:27-37.
52. Suzuki S, Ogawa T. An investigation of stress responses and sense of authenticity in junior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 perspectives of self-esteem and sense of being accepted. *Tsukuba Psychological Research* 2008;36:97-104.
53. Takakura M, Sakihara S. Psychosocial correlate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Japanese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001;28:82-89.
54. Teasdale JD. Cognitive vulnerability to persistent depression. *Cognition and Emotion* 1988;2:247-274.
55. Uchida T, Hujimori T. A study on the connection between family relationship and children's depression and fear. *Bulletin of Kyoto University of Education* 2007;110:93-110.
56. Zung WWK.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965; 12:63-70.